

● 신고리원자력 2호기 원자로 설치

- 개선형 한국표준원전, 수출전략 모델의 원자로 -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김종신, 이하 한수원)는 신고리 원자력 2호기의 원자로 설치 행사를 2월 26일 오후 2시에 약 200명의 건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신고리1,2호기 건설 현장에서 가졌다.

신고리 1,2호기는 국내 기술진에 의해 설계, 제작되어 안전성과 유지보수성이 더욱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양호기 공용의 복합건물 채택 등을 통하여 경제성 또한 제고된 국내 최신의 1,000 MW급『개선형한국표준원전』으로 작년 3월에는 1호기 원자로를 설치한 바 있다.

경제 불황과 잠재적인 유가 불안정 상황이 긴박한 현 시점에서 원전의 핵심기인 원자로 설치는 2010년대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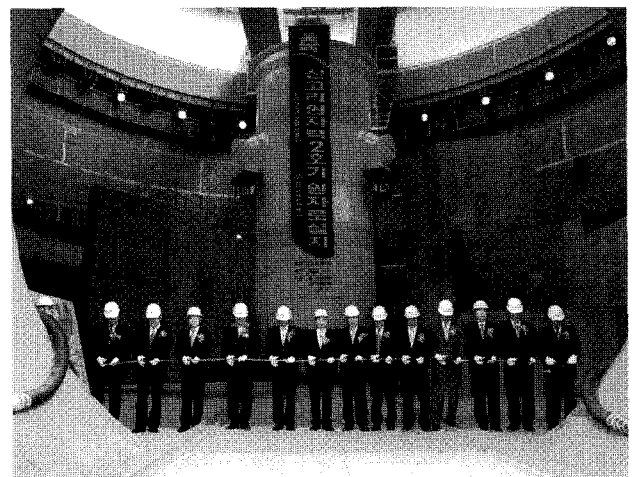
원자로는 핵연료를 분열시켜 열을 발생시키고 방사선을 차폐하는 역할을 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설비로써, 증기발생기와 함께 원전의 안전성을 결정하는 주요설비 중의 하나다.

오늘 설치된 신고리2호기 원자로는 국내 최초로 일체형 상부구조물 장치가 가능토록 설계, 제작된 직경 4.5m, 높이 14.6m, 중량 약 350톤에 달한다. 특히 일체형 상부구조물은

연료 장전시 작업시간 단축으로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 감소에 매우 효과적으로 설계됐다.

현재 진행중인 신고리1,2호기 건설공정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3월 원자로를 설치한 신고리1호기는 약 80%로 기기설치 공사가 완료되어 시운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2호기는 오늘 원자로 설치에 이어 본격적인 기기 설치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고리1,2호기는 2000년 8월 건설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2005년 7월 건설허가를 취득, 다음해 6월에 최초 콘크리트 타설을 했으며 작년 9월 1호기 초기 전원가압에 이어 오늘 2호기 원자로를 성공적으로 설치하는 등 순조롭게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신고리1호기는 2010년 12월에, 2호기는 2011년 12월에 상업운전을 목표로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다.



● 남부발전, 준법감시인제도 도입

- Clean Hands 운동 Kick-off -
- "사장인 나부터 감시해 주세요" 청렴실천운동 전개 -

한국남부발전(주)[사장 남호기/ 이하 '남전']은 2월 2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회사 윤리 경영마인드 제고와 자율적 윤리실천을 위한 "신임 준법감시인 임명 및 윤리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현재 준법감시인제도는 주로 선진 금융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남전은 공기업 중 최초로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사업소별로 자체 공모를 통하여 직원, 부장 등 16명의 준법감시인을 선출토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준법감시인 제도란 기관 내부의 정책, 규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상시적으로 감독, 통제하는 제도

이날 임명된 16명의 준법감시인은 앞으로 부패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청렴한 조직문화의 정착과 윤리경영 실천 활동의 선도 및 부패사태에 대한 감사실 조사요뢰, CEO의 Hot Line 역할 수행 등 Clean Hands(청렴) 운동의 파수꾼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 Clean Hands(청렴) 운동이란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협력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남전 고유의 청렴 실천운동.

남호기 사장은 준법감시인에게 임명장 수여와 함께 일일이

머플러를 걸어주며, '청렴은 우리가 가고자하는 선진화의 첫 걸음임'을 강조하며, 대내외 비위행위와 관련된 직원은 더 이상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없다'며, 연대책임과 일벌백계로 다스려 '부패가 1mm도 자랄 수 없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기필코 만들겠다'는 의지를 전달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민은행 준법감시인 김영준 팀장을 초청하여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조건들에 대해 강의를 들었으며, 선진화 추진팀장의 준법감시인의 역할 발표 및 감사실의 2008년도 청렴도 조사결과 및 대책 발표에 이어 윤리경영 담당자간의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08년 남전은 청렴도 조사에서 5개 발전사 중 1위, 공기업 KoBEX 윤리지수에서 최고 수준의 인증(9.77점)을 받았으며, '09년에는 준법감시인 제도를 통해 내부적으로 자율적인 사전 부패방지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 서부발전, “삼랑진태양광발전” UN에 CDM 사업등록

- 국내 태양광발전 CDM 사업중 최대규모 -

한국서부발전(사장 손동희)은 2월 26일 삼랑진태양광발전소(3MW)가 UN 산하기관인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로 부터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 등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CDM 사업등록을 위해 2006년 6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6월 국가승인 및 2008년 8월 UN 등록신청을 거쳐 이번에 2년 6개월만에 CDM사업 승인을 받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4개의 태양광발전이 등록(전세계 7개) 되어 있으며 그 중 삼랑진태양광발전이 최대규모 사업이다

이번 사업등록은 향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 편입에 대비한 국제공인 탄소배출권 확보와 탄소 수익 추가 창출 등 기후변화에 대한 조기대응 성과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서는 UNFCCC에 CDM 사업등록을 획득해야 하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1,406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국내 등록은 23건이다.

● LS산전, 『그린에너지 환경』구현 핵심인 '녹색전력IT' 개발 박차 - 소비자전력관리장치 1단계 개발 완료 후 2단계 돌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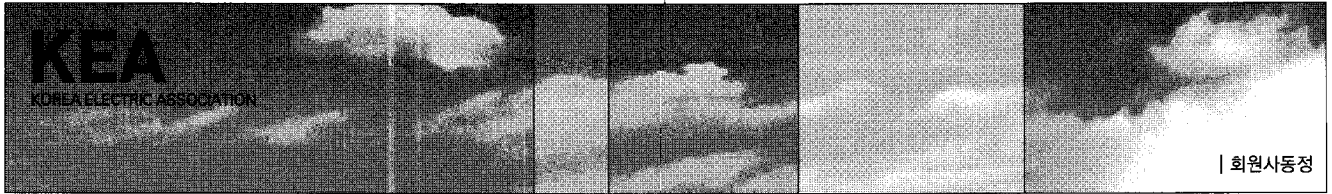
- 아파트용 스마트계량시스템 시범사업 성공
- 이윤호 지경부 장관, 녹색전력IT 점검차 LS산전 개발 현장 방문
- 정부 지원과 시장 확대 기대감 '고무적'

LS산전(대표 구자균)은 최근 소비자전력관리장치(SCP; Smart Cabinet Panel) 개발하고 아파트용 스마트계량시스템을 설치하고 실증을 마치는 등 녹색전력IT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녹색 전력 IT 과제 개발』이 갖는 의미는 일정 지역 내의 전력 소비 가구의 전력 수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전력 소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력 생산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전력 생산량을 줄이더라도 소비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전력 생산에 따른 환경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기술 개발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LS산전은 녹색성장의 한 축으로 평가받고 있는『그린에너지 환경』구현의 핵심인 전력IT 과제를 통해 수용가 전력관리장치를 개발해 왔으며, 최근에는 일반 가정에까지 적용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서울대학교와 함께 아파트 전력효율화 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최근 수행한 아파트 전력효율화 시스템은 기존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알 수 없었던 현재 전기 요금, 누진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집 안에 설치된 장치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전력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어 전력사용량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약 80여 세대에 직접 설치해 본 결과 단순비교로는 약 5%의 절감효과, 기온 변화에 따른 실제 절감 효과는 약 1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LS산전은 이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시에는 실시간으로 전기요금까지 변동해 전력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녹색전력IT 점검차 LS산전의 소비자전력관리장치 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스템을 둘러보고,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S산전의 소비자전력관리장치를 담당하고 있는 전력연구소 이진 수석연구원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으로 정부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기술 개발 진척이 빠른 만큼 정부의 지원으로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에너지수급과 CO₂배출 등의 통제가 가능하고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수요 예측도 가능하게 되는 만큼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나 기업이나 모두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LS산전은 전력IT 과제를 통해 지난 2005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소비자전력관리장치 1단계 개발을 완료했으며 2010년 9월까지 2단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용 스마트 계량시스템 시범사업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했으며 이 외에도 전력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국책 과제에 참여해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